

전략적 사고 국어항
정답 10분 컷 시간 단축 1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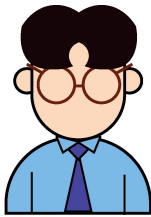
화법과 작문

수능에서

10분 안에 푸는 법

박민석 지음

저자 소개



박민석
6년차 학원 강사
유튜브 채널 '박민석' 운영

순서

| | |
|---------------------------------------|--------|
| 유형 1 - 말하기 전략 풀이 방법 | P. 4 |
| 유형 1 - 말하기 전략 기출 문제 풀이 | P. 6 |
| 유형 1 - 말하기 전략 풀이법 적용 손필기 | P. 14 |
| 유형 2 - 항목별 내용 일치 풀이 방법 | P. 22 |
| 유형 2 - 항목별 내용 일치 기출 문제 풀이 | P. 23 |
| 유형 2 - 항목별 내용 일치 풀이법 적용 손필기 | P. 28 |
| 유형 3 - 청중의 반응 풀이 방법 | P. 34 |
| 유형 3 - 청중의 반응 기출 문제 풀이 | P. 35 |
| 유형 3 - 청중의 반응 풀이법 적용 손필기 | P. 40 |
| 유형 4 - 거꾸로 질문 추론 풀이 방법 | P. 46 |
| 유형 4 - 거꾸로 질문 추론 기출 문제 풀이 | P. 47 |
| 유형 4 - 거꾸로 질문 추론 풀이법 적용 손필기 | P. 50 |
| 유형 5 - 화법 / 작문 융합 문제 풀이 방법 | P. 54 |
| 유형 5 - 화법 / 작문 융합 문제 기출 문제 풀이 | P. 56 |
| 유형 5 - 화법 / 작문 융합 문제 풀이법 적용 손필기 | P. 66 |
| 유형 6 - 자료 활용하기 풀이 방법 | P. 76 |
| 유형 6 - 자료 활용하기 기출 문제 풀이 | P. 77 |
| 유형 6 - 자료 활용하기 풀이법 적용 손필기 | P. 82 |
| 유형 7 - 조건에 따른 글쓰기 풀이 방법 | P. 88 |
| 유형 7 - 조건에 따른 글쓰기 기출 문제 풀이 | P. 89 |
| 유형 7 - 조건에 따른 글쓰기 풀이법 적용 손필기 | P. 97 |
| 유형 8 - 고쳐쓰기 풀이 방법 | P. 104 |
| 유형 8 - 고쳐쓰기 기출 문제 풀이 | P. 106 |
| 유형 8 - 고쳐쓰기 풀이법 적용 손필기 | P. 116 |
| 기타 유형 - 행동 양식 | P. 126 |
| 기타 유형 - 기출 문제 풀이 | P. 128 |
| 기타 유형 - 행동 양식 점검 손필기 | P. 138 |
| 부록 - 화법과 작문 필수 개념 | P. 148 |
| 정답 및 해설 | P. 151 |

화법과 작문 - 왜 공부해야 하는가?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선택 과목 화법과 작문을 공부함에 있어, 우리의 목표는 두 가지가 되어야 한다.

1. 정확도

틀리면 안 된다. 난이도가 높지 않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11문제 모두를 맞혀야 한다. 화작에서 정확도보다 우선시될 가치는 없다. 다만 이것만 고려할 수는 없다는 게 현실이다.

2. 속도

안 틀리는 선에서 가장 빨리 풀어야 한다. 보통 언어와 매체에서 시간적인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입장에서는 손해를 줄인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

이미 표준 점수에서 손해를 보는 모습이 확실하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까지 크게 손해를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 '다 맞으면 되지'라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 '다 맞으면서 최대한 빨리 풀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전략적, 능동적인 생각 및 문제 풀이 연습의 기회로 화법과 작문이라는 과목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능 국어는 '태도의 과목'이다. 지식적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생각을 하며 문제를 푸는지와 관련된 '태도'라는 요소가 국어 점수 향상에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화법과 작문을 통해 문제를 훑어보고 전략을 수립한 후 정답을 골라내는, 단순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메커니즘을 연습해야 한다.

독서와 문학은 화법과 작문보다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연습을 쉽게 시도할 수 없다. 화법과 작문에서 연습하고 올바른 태도를 기른 후, 이런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독서와 문학에까지 확장,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화법과 작문 -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이 책에서는 전략에 따른 문제 풀이에 집중한다.

보통 '발표, 강연, 토론, 토의' 등의 담화 유형에 많이들 집중하지만 그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문제 유형이다. 문제를 읽고 전략을 수립해서 전략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화법과 작문 문제 풀이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화법과 작문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나왔던 유형

처음 보는 유형

나왔던 유형이 또 반복되어 출제된다면 준비한 최적의 풀이법대로 풀어야 한다.

반복적으로 나왔던 유형에 대한 최적화된 풀이법을 학습할 것이다.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면 그때 문제를 읽고 전략을 수립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

기존 유형에 대한 풀이법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문제를 읽고 스스로의 전략에 따라 문제를 푸는 태도를 배울 수 있고,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사고과정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무조건 이 유형만 나올 것이기 때문에 풀이법을 외우자는 것이 아니다. 전략적인 사고를 함께 경험하고 앞으로의 문제 풀이를 새롭게 바꿔서,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이득을 얻어가자는 것이다.

그래도 똑같은 유형이 나오면 학습한 대로 똑같이 풀도록 하자.

어떤 유형인가?

보통 첫 문제로 나오는 유형이다.
 지문의 내용이 아닌 형식적 요소에 대해서 묻는다.
 지문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절대 지문부터 읽지 말고 문제(선택지)부터 봐야 한다.
 첫 문제이기 때문에 풀이 방법을 정확하게 약속해두어야 한다.
 화법과 작문 전체 문제 풀이 과정에 첫 문제가 큰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긴장하지 않고 풀던 대로 풀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풀 것인가?

- ① **선택지를 스캔하며 ‘먼저 확인’할 선택지를 찾는다.**
 먼저 확인할 선택지를 인지하고 기준을 잡아서 지문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먼저 확인할 선택지가 아니라면 나중에 확인하기 위해 미뤄둔다.
- ② **‘먼저 확인’할 선택지를 지문에서 확인하여 지우거나 선택하기**
 세운 계획대로 확인하는 단계이다.
- ③ **답이 안 나왔다면 나머지 선택지 확인하기**
 답이 안 나왔다고 상심할 것이 없다.
 만약 먼저 확인할 선택지들에서 답이 없다면 나머지 선택지에서 답을 찾으면 된다.
 우리의 목표는 ‘답 찾기’가 아니라 ‘선택지 지우기’이다. 이렇게 목표를 바꿔야 문제 풀이 속도가 빨라진다.



<먼저 확인할 선택지>

㉠ '위치'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선택지

: ('처음'과 '마지막')에 위치하는 내용을 담은 선택지

- 청중의 주의를 환기 - 처음

(청중의 배경 지식, 공유하고 있는 경험 등을 환기하는 내용도 가능성은 높으나 중간에 있을 수도 있음)

- 발표 순서를 안내 - 처음

- 발표의 목적을 제시 - 처음

- 발표를 준비하게 된 동기 제시 - 처음

- 발표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 - 마지막

- 다음 발표 내용을 제시하며 마무리 - 마지막

- 실천을 당부하며 마무리 - 마지막

㉡ '형태'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선택지

- 시각 자료 혹은 매체 활용 : '괄호'의 내용 확인

- 청중에게 질문 : '물음표' 확인

- 청중의 반응을 확인 : '괄호' + 이후 내용 확인

- 대답을 예상하고 질문 : '물음표' + '괄호' + '이후 내용'까지 확인

- 청중의 반응에 따른 조절 : '괄호' + 이후 내용 확인

- 통계 자료를 활용 : 구체적 수치 확인

[2021학년도 수능]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탐구 과제는 ‘우리 문화재 깊이 보기’인데요, 저는 ‘고구려 고분 벽화’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고구려 고분 벽화를 본 적이 있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우리나라 고분 벽화의 대다수는 고구려 돌방무덤에 있습니다. 돌방무덤은 돌을 쌓아 방처럼 만든 무덤으로 3세기부터 만들어졌는데요, 바로 이 시기에 고분 벽화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료 제시) 여기가 돌방무덤의 내부입니다. 고분 벽화는 이곳의 천장과 벽에 그려져 있어요.

그럼 고구려 고분 벽화에는 무엇을 그렸을까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네, 다양한 답변이 있네요. 3세기 중반부터 5세기 초에는 밥 먹는 모습, 사냥하는 모습 등 무덤 주인의 일상생활을 주로 그렸습니다. (㉡자료 제시) 이것은 주인과 종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주인을 종에 비해 크게 그린 건데요, 이렇게 주가 되는 것을 크게, 나머지는 작게 그리는 방법을 ‘주대종소법’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분 벽화에서는 이 방법을 활용하여, 무덤 주인의 권위를 강조하고 그의 풍요로운 삶이 사후 세계에서도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냈습니다.

5세기 중반부터 6세기 초의 고분 벽화에는 연꽃무늬가 주로 등장합니다. 이때는 불교가 확산되는 시기로, 무덤 주인이 이상 세계에 다시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연꽃을 통해 표현했습니다. 6세기 중반부터 7세기 전반의 일부 고분에는 연꽃 위에 도교 사상과 관련된 신선을 그렸는데요, (㉢자료 제시) 이것은 불교와 도교 사상이 공존하던 당시의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시기 대다수의 고분 벽화에는 도교의 영향으로 청룡, 백호 등과 같은 사신(四神)을 주로 그렸습니다. 사신이 무덤 주인을 수호해 준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대의 인식과 사회상을 담아낸 고분 벽화의 전통은 조선 전기까지 이어졌습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는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역사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중에게 기대하는 바를 언급하여 발표 목적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발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여 청중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 ③ 청중의 요청에 따라 발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④ 발표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도록 돕고 있다.
- ⑤ 발표 내용이 청중과 관련성이 높음을 제시하여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2021학년도 9월 평가원]

■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뽕은맛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맛이 어떻게 해서 느껴지는지, 뽕은맛이 나는 식품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뽕은맛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과학 시간에 단맛, 짠맛, 신맛 등과 같은 기본적인 맛이 혀의 미각 세포를 통해 느껴진다고 배운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대답을 듣고) 다들 잘 알고 있네요. 그런데 뽕은맛은 입속 점막과 같은 피부 조직이 자극을 받아 느껴지는 촉각에 해당해요. 뽕은맛을 내는 성분은 입안에서 혀 점막의 단백질과 결합합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혀의 점막을 자극하죠. 이 자극 때문에 우리는 입안이 텁텁하다고 느낍니다. 그 텁텁한 느낌을 뽕은맛이라고 하는 거죠.

(사진을 보여 주며) 이것은 감의 단면입니다. 과육 사이에 보이는 작고 검은 점들을 본 적이 있으시죠? (대답을 듣고) 네, 다들 본 적이 있는 이 점들이 뽕은맛을 내는 성분 중의 하나인 타닌입니다. 덜 익은 감의 타닌은 침에 녹는 성질이 있어 뽕은맛을 느끼게 해요. 하지만 감이 익어 가면서 타닌이 침에 녹지 않는 성질로 변하기 때문에 잘 익은 감에서는 뽕은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뽕은맛이 나는 식품을 적당히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뽕은맛을 내는 타닌이 들어 있는 감과 녹차는 당뇨와 고혈압 등을 개선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뽕은맛이 나는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입이 마르고, 대장에서 수분 흡수율이 지나치게 높아져서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적당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뽕은맛을 꺼리는 사람도 있지만 뽕은맛은 다른 맛과 혼합돼 독특한 풍미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 풍미 때문에 녹차나 홍차를 즐기는 사람도 많은데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변에 뽕은맛이 나는 식품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뽕은맛이 나는 식품에는 무엇이 더 있는지 여러분도 찾아보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2.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표에 사용할 용어의 개념을 정의한 후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청중의 요청에 따라 발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발표 중간중간에 청중이 발표를 들으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안내하고 있다.
- ④ 발표 내용과 관련된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며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 ⑤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2022학년도 수능 예시 문항]

■ 다음은 수업 시간 중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복어, 황태, 코다리, 동태. 이처럼 명태는 가공 방식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명태라는 이름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만화 제시) 보신 것처럼 명천에 사는 어부 태 씨가 잡았다고 해서 이름이 명태라니 흥미롭지요? 명태를 모르는 분은 없겠지만, 평소 식탁에 자주 오르는 명태가 우리 바다에서 더 이상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무관심했던 명태에 대해 알려 드리고 싶어 명태가 사라져 가는 실태와 그 원인, 그리고 명태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소개하겠습니다.

명태는 동해에 풍부하게 서식해 (도표 1 제시) 보시는 것처럼 연간 수만 톤씩 잡혔지만 1990년대 들어 어획량이 줄어들더니 2000년부터는 급격히 감소해 최근에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표 2 제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명태는 거의 다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태는 왜 우리 바다에서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연구자들은 남획을 그 원인으로 꼽습니다. 새끼 명태인 노가리까지 무차별적으로 잡아 명태의 씨가 말랐다는 것입니다. 한편 지구 온난화를 원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동해의 표층 온도 상승이 명태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지요. (청중의 반응을 살핀 후) 미리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지만 말씀드린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넷에서 동영상 하나 찾아 보여 드릴게요. (동영상 재생) 보신 것처럼 명태는 차가운 바다의 표층에 알을 낳기 때문에 표층 온도가 오르고 있는 동해는 명태에게 불리한 바다 환경인 셈이지요.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진 명태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중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해 연도별로 그 진행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중의 반응을 살핀 후) 간단히 설명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네요. 그럼, 준비한 사진과 내용은 많지만 몇 장의 사진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만을 설명하겠습니다. (세 장의 사진을 골라 한 화면에 제시) 첫 사진에 보이는 이 어미 명태로부터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례금을 걸 정도로 어렵게 명태를 확보한 연구진은 치어를 인공 부화하는 데 성공하였고, 다음 사진처럼 동해에 명태를 방류하였습니다. 마지막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적은 수지만 방류했던 명태가 잘 자라고 있음이 확인되어 우리 바다에 명태가 되살아날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는 2019년부터 우리 바다에서의 명태잡이를 금지해 명태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을 다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 더 알고 싶거나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발표 후 제게 질문해 주시거나 제가 발표를 위해 참고한 ○○수산연구소 누리집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3. 위 발표를 위한 계획 중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명태가 사라져 가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사연을 소개해야겠다.
- ② 명태가 다양하게 불리는 점을 언급하며 화제를 제시해야겠다.
- ③ 어미 명태를 확보하는 일이 어려웠다는 점을 언급해야겠다.
- ④ 명태를 되찾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설명해야겠다.
- ⑤ 명태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려는 목적을 밝혀야겠다.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 다음은 '교내 연설 대회'에 참가한 학생의 연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환경의 날 행사 때 교내 방송으로 시청했던 영상을 잠시 떠올려 봅시다. 작은 빙하에 의지한 채 바다를 부유하던 북극곰의 눈물을 보며 모두들 가슴 아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눈물은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 온난화가 빚어 낸 비극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연안 생태계의 가치와 보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11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 노력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를 위한 산림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산화탄소 흡수원이 있습니다. 바로 연안 생태계입니다.

연안 생태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에 탁월합니다. 물론 연안 생태계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겠냐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연안 생태계를 구성하는 갯벌과 염습지의 염생 식물, 식물성 플랑크톤 등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산림보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납니다. 2018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 연안 생태계 중 갯벌의 면적은 산림의 약 4%에 불과하지만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산림의 약 37%이며 흡수 속도는 수십 배에 달합니다.

또한 연안 생태계는 탄소의 저장에도 효과적입니다. 연안의 염생 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갯벌과 염습지에 탄소를 저장하는데 이 탄소를 블루카본이라 합니다. 산림은 탄소를 수백 년간 저장할 수 있지만 연안은 블루카본을 수천 년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면 블루카본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이산화탄소 등이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그러므로 블루카본이 온전히 저장되어 있도록 연안 생태계를 보호해야 합니다.

① **지금 우리가 연안 생태계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북극곰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나무 한 그루 심기와 함께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이자 저장고인 지구의 보물,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 데 동참합시다.

4. 위 연설자의 말하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유의 문장을 사용하여 주장이 야기한 논란을 해소한다.
- ② 통계 자료를 근거로 활용하여 주장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 ③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하여 특정 대상의 가치를 강조한다.
- ④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들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시킨다.
- ⑤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20학년도 수능]

■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필통에는 어떤 필기구가 가장 많은가요? (청중의 답을 듣고) 네, 제 생각대로 볼펜이 많군요. 그럼 사람들은 왜 볼펜을 애용할까요? 값이 싸고 휴대하기 편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볼펜이 사람들에게 널리 사용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볼펜은 글씨를 쓸 때 종이가 찢어지거나 볼펜 끝 부분이 망가지는 일이 적습니다. 이게 왜 장점일까요? (자료 1을 가리키며) 보시는 것처럼 볼펜이 사용되기 이전부터 쓰이던 만년필은 모세관 현상에 의해 힘들이지 않고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펜촉이 날카로워 종이가 찢어지기도 하고, 거친 표면에 글씨를 쓰면 펜촉이 망가지기도 쉽습니다.

아, 질문이 있으시네요. (㉠청중의 질문을 듣고)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종이의 섬유소가 가는 대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펜촉에 있던 잉크가 모세관 현상에 의해 종으로 흘러가서 쉽게 필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청중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네, 그럼 발표를 이어 가겠습니다.

(자료 2를 가리키며) 보시는 것처럼 볼펜은 글씨를 쓸 때 볼과 종이의 마찰에 의해 볼이 구르지요. 이 과정에서 볼의 잉크가 종이에 묻으며 글씨가 써집니다. 그런데 볼펜의 볼이 빠진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시죠? (자료 3을 가리키며) 보시는 것처럼 볼펜은 잉크가 들어갈 대롱의 끝에 볼을 넣은 후 밑부분을 오픈하려 볼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데요, 볼이 빠지는 문제를 정밀한 기술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볼펜은 종류가 다양하여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고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글자가 물에 잘 번지지 않는 유성 볼펜, 필기감이 부드러운 수성 볼펜, 여러 색을 하나에 담은 다색 볼펜, 글씨를 쓰고 지울 수 있는 볼펜, 우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압 볼펜 등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볼펜은 신문 기자였던 라즐로 비로가 특허를 낸 이후 상용화되면서 기존 필기구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꾸준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볼펜이 사람들에게 널리 사용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5.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발표 대상의 종류를 열거하여 장점을 소개하고 있다.
- ② 청중의 대답을 예상하고 질문하여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청중의 경험을 이끌어내며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 ⑤ 발표 대상의 특징을 부각하기 위해 다른 대상과 비교하고 있다.



[2020학년도 9월 평가원]

■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발표를 맡은 ○○○입니다. 저는 전통극과 관련된 문화유산 중 ‘예산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산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산대’를 알아야 하는데요, 산대는 산 모양의 큰 무대입니다. 산대는 대개 고정되어 있었지만 『광해군 일기』에 사람들이 산대를 끌어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동이 가능한 산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예산대인데, 이 명칭은 『성종실록』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산대의 구체적인 모습은 조선 영조 때 중국 사신단의 일정을 담은 『봉사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기이한 돌산처럼 보이는 물체를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죠? 이것이 바로 전통 인형극을 위한 예산대의 전체 모습입니다.

우선, 예산대에 있는 인형들을 알아보을까요? 수레바퀴 바로 위에는 선녀 인형과 낚시꾼 인형이, 그 위에는 원숭이 인형 등이 있습니다. 그림이 작아 잘 안 보일 테니 이 인형들만 확대해서 보여 드릴게요. (㉡자료 제시) 지금 보는 선녀 인형은 양팔을 흔들며 춤을 추었습니다. 낚시꾼 인형은 낚싯대를 앞뒤로 움직이는 모습을 연출했다고 해요. 그리고 원숭이 인형은 돌아가면서 주변 구멍에 얼굴을 내밀어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산대 위의 인형들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산대 아랫부분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료 제시) 여기 보이는 수레바퀴가 그 역할을 했는데요, 이 그림은 최근 예산대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내부 구조를 재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산대를 이동하면, 예산대 내부의 톱니바퀴가 수레바퀴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회전하면서 인형들을 움직였습니다.

이처럼 예산대는 이동 시에 인형들을 자동으로 움직여 극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점에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산대에 대해 관심이 좀 생겼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여러분도 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전통문화의 또 다른 예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6.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중에게 질문을 하여 발표 내용에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② 정보의 출처를 언급하여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③ 청중과 공유했던 경험을 제시하며 발표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 ④ 발표 주제와 관련된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발표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며 청중에게 바라는 바를 제시하고 있다.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탈’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저는 며칠 전에 <세계 여러 나라의 탈>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인상적인 탈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발표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던 중 마침 국어 시간에 ‘봉산 탈춤’을 배워서 발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면 1을 가리키며) 이 탈의 이름을 아세요? (청중의 반응이 없자) 안동에서 볼 수 있는 탈이에요. (대답을 듣고) 하회탈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군요. 흔히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정확히는 하회탈 중 양반탈입니다. ‘봉산 탈춤’의 양반탈과 달리 눈 아래부터 귀 위까지 이어진 선이 눈꼬리와 겹쳐 미소를 만드는데, 단순한 얼굴형에 특별한 장식이나 화려한 색채 없이 눈썹, 눈, 코, 입을 선으로 표현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양반은 냉수 마시고도 이 쭈신다.”라는 말에 담긴 허풍과 여유가 동시에 느껴지지 않나요?

(화면 2를 가리키며) 이 탈은 중국의 장수 관우탈인데요, 무엇이 가장 먼저 보이세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저는 용이 새겨진 복잡한 모양의 관에 시선이 갔습니다. 양반탈이 이마 부분까지만 표현돼 있는 것과 달리 관우탈은 머리에 쓴 관까지 표현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얼굴이 강렬한 붉은 색이어서 무시무시하면서도 화려한 느낌을 줍니다. 얼굴과 머리 부분을 모두 이용해 관우의 박력과 위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마지막은 아프리카 카메룬의 탈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의 탈은 과장과 생략이 특징입니다. (화면 3을 가리키며) 보시는 것처럼 이 탈도 추상적으로 보일 만큼 과감한 생략이 인상적인데요, 단순한 곡선과 직선으로 표현된 커다란 눈이 작은 코와 대비되어 더 두드러져 보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탈들을 (화면 4를 가리키며)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선을 활용하여 단순하게 표현된 왼쪽 탈들, 화려한 장식에 다소 복잡한 오른쪽 탈이 보이시죠? 이 차이가 탈의 용도 때문은 아닌지 궁금하여 기회가 되면 ‘탈의 용도에 따른 모양’이란 주제로 탐구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조사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입부에서 발표에 사용될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며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수업 시간의 경험이 발표 주제 선정의 동기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③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며 발표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 ④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며 추가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도를 확인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horizontal blue lines, intended for writing a memo or notes.

[2021학년도 수능]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탐구 과제는 ‘우리 문화재 깊이 보기’인데요, 저는 ‘고구려 고분 벽화’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고구려 고분 벽화를 본 적이 있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우리나라 고분 벽화의 대다수는 고구려 돌방무덤에 있습니다. 돌방무덤은 돌을 쌓아 방처럼 만든 무덤으로 3세기부터 만들어졌는데요, 바로 이 시기에 고분 벽화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료 제시) 여기가 돌방무덤의 내부입니다. 고분 벽화는 이곳의 천장과 벽에 그려져 있어요.

그럼 고구려 고분 벽화에는 무엇을 그렸을까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네, 다양한 답변이 있네요. 3세기 중반부터 5세기 초에는 밥 먹는 모습, 사냥하는 모습 등 무덤 주인의 일상생활을 주로 그렸습니다. (㉡자료 제시) 이것은 주인과 종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주인을 종에 비해 크게 그린 건데요, 이렇게 주가 되는 것을 크게, 나머지는 작게 그리는 방법을 ‘주대종소법’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분 벽화에서는 이 방법을 활용하여, 무덤 주인의 권위를 강조하고 그의 풍요로운 삶이 사후 세계에서도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냈습니다.

5세기 중반부터 6세기 초의 고분 벽화에는 연꽃무늬가 주로 등장합니다. 이때는 불교가 확산되는 시기로, 무덤 주인이 이상 세계에 다시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연꽃을 통해 표현했습니다. 6세기 중반부터 7세기 전반의 일부 고분에는 연꽃 위에 도교 사상과 관련된 신선을 그렸는데요, (㉢자료 제시) 이것은 불교와 도교 사상이 공존하던 당시의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시기 대다수의 고분 벽화에는 도교의 영향으로 청룡, 백호 등과 같은 사신(四神)을 주로 그렸습니다. 사신이 무덤 주인을 수호해 준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대의 인식과 사회상을 담아낸 고분 벽화의 전통은 조선 전기까지 이어졌습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는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역사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중에게 기대하는 바를 언급하여 발표 목적을 부각하고 있다. - **청중에게 확인**
- ② 발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여 청중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 **? 안 있었음 짐 (안녕하세요? 제니)**
- ③ 청중의 요청에 따라 발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다. - **() 이후 내용 확인**
- ④ 발표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도록 돕고 있다. - **청중에게 확인**
- ⑤ 발표 내용이 청중과 관련성이 높음을 제시하여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청중에게 확인**



[2021학년도 9월 평가원]

■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뽕은맛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맛이 어떻게 해서 느껴지는지, 뽕은맛이 나는 식품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뽕은맛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과학 시간에 단맛, 짠맛, 신맛 등과 같은 기본적인 맛이 혀의 미각 세포를 통해 느껴진다고 배운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대답을 듣고) 다들 잘 알고 있네요. 그런데 뽕은맛은 입속 점막과 같은 피부 조직이 자극을 받아 느껴지는 촉각에 해당해요. 뽕은맛을 내는 성분은 입안에서 혀 점막의 단백질과 결합합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혀의 점막을 자극하죠. 이 자극 때문에 우리는 입안이 텁텁하다고 느낍니다. 그 텁텁한 느낌을 뽕은맛이라고 하는 거죠.

(사진을 보여 주며) 이것은 감의 단면입니다. 과육 사이에 보이는 작고 검은 점들을 본 적이 있으시죠? (대답을 듣고) 네, 다들 본 적이 있는 이 점들이 뽕은맛을 내는 성분 중의 하나인 타닌입니다. 덜 익은 감의 타닌은 침에 녹는 성질이 있어 뽕은맛을 느끼게 해요. 하지만 감이 익어 가면서 타닌이 침에 녹지 않는 성질로 변하기 때문에 잘 익은 감에서는 뽕은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뽕은맛이 나는 식품을 적당히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뽕은맛을 내는 타닌이 들어 있는 감과 녹차는 당뇨와 고혈압 등을 개선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뽕은맛이 나는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입이 마르고, 대장에서 수분 흡수율이 지나치게 높아져서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적당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뽕은맛을 꺼리는 사람도 있지만 뽕은맛은 다른 맛과 혼합돼 독특한 풍미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 풍미 때문에 녹차나 홍차를 즐기는 사람도 많은데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변에 뽕은맛이 나는 식품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뽕은맛이 나는 식품에는 무엇이 더 있는지 여러분도 찾아보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2.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표에 사용할 용어의 개념을 정의한 후/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처음'에서 확인
- ② 청중의 요청에 따라 발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다. - () 이후 내용 확인
- ③ 발표 중간중간에 청중이 발표를 들으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안내하고 있다. - '우리. 청중 다 알수 있지' 내용에 확인
- ④ 발표 내용과 관련된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며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 '처음'에 있을 확률 높음
- ⑤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 '다시'에서 확인 () 확인



[2022학년도 수능 예시 문항]

■ 다음은 수업 시간 중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복어, 황태, 코다리, 동태. 이처럼 명태는 가공 방식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명태라는 이름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만화 제시) 보신 것처럼 명천에 사는 어부 태 씨가 잡았다고 해서 이름이 명태라니 흥미롭지요? 명태를 모르는 분은 없겠지만, 평소 식탁에 자주 오르는 명태가 우리 바다에서 더 이상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무관심했던 명태에 대해 알려 드리고 싶어 명태가 사라져 가는 실태와 그 원인, 그리고 명태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소개하겠습니다.

명태는 동해에 풍부하게 서식해 (도표 1 제시) 보시는 것처럼 연간 수만 톤씩 잡혔지만 1990년대 들어 어획량이 줄어들더니 2000년부터는 급격히 감소해 최근에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표 2 제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명태는 거의 다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태는 왜 우리 바다에서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연구자들은 남획을 그 원인으로 꼽습니다. 새끼 명태인 노가리까지 무차별적으로 잡아 명태의 씨가 말랐다는 것입니다. 한편 지구 온난화를 원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동해의 표층 온도 상승이 명태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지요. (청중의 반응을 살핀 후) 미리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지만 말씀드린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넷에서 동영상 하나 찾아 보여 드릴게요. (동영상 재생) 보신 것처럼 명태는 차가운 바다의 표층에 알을 낳기 때문에 표층 온도가 오르고 있는 동해는 명태에게 불리한 바다 환경인 셈이지요.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진 명태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중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해 연도별로 그 진행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중의 반응을 살핀 후) 간단히 설명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네요. 그럼, 준비한 사진과 내용은 많지만 몇 장의 사진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만을 설명하겠습니다. (세 장의 사진을 골라 한 화면에 제시) 첫 사진에 보이는 이 어미 명태로부터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례금을 걸 정도로 어렵게 명태를 확보한 연구진은 치어를 인공 부화하는 데 성공하였고, 다음 사진처럼 동해에 명태를 방류하였습니다. 마지막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적은 수지만 방류했던 명태가 잘 자라고 있음이 확인되어 우리 바다에 명태가 되살아날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는 2019년부터 우리 바다에서의 명태잡이를 금지해 명태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을 다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 더 알고 싶거나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발표 후 제게 질문해 주시거나 제가 발표를 위해 참고한 ○○수산연구소 누리집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3. 위 발표를 위한 계획 중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명태가 사라져 가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사연을 소개해야겠다. - '청중이 알지 못하는 내용'
 - ② 명태가 다양하게 불리는 점을 언급하며 화제를 제시해야겠다. - '청중에게 각인'
 - ③ 어미 명태를 확보하는 일이 어려웠다는 점을 언급해야겠다. - '우리, 황태 다 알수 없는 내용에 각인'
 - ④ 명태를 되찾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설명해야겠다.
 - ⑤ 명태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려는 목적을 밝혀야겠다. - '청중에게 각인'
- 우리, 황태 다 알수 없는 내용에 각인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 다음은 '교내 연설 대회'에 참가한 학생의 연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환경의 날 행사 때 교내 방송으로 시청했던 영상을 잠시 떠올려 봅시다. 작은 빙하에 의지한 채 바다를 부유하던 북극곰의 눈물을 보며 모두들 가슴 아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눈물은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 온난화가 빚어 낸 비극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연안 생태계의 가치와 보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11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 노력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를 위한 산림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산화탄소 흡수원이 있습니다. 바로 연안 생태계입니다.

연안 생태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에 탁월합니다. 물론 연안 생태계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겠냐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연안 생태계를 구성하는 갯벌과 염습지의 염생 식물, 식물성 플랑크톤 등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산림보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납니다. 2018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 연안 생태계 중 갯벌의 면적은 산림의 약 4%에 불과하지만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산림의 약 37%이며 흡수 속도는 수십 배에 달합니다.

또한 연안 생태계는 탄소의 저장에도 효과적입니다. 연안의 염생 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갯벌과 염습지에 탄소를 저장하는데 이 탄소를 블루카본이라 합니다. 산림은 탄소를 수백 년간 저장할 수 있지만 연안은 블루카본을 수천 년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면 블루카본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이산화탄소 등이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그러므로 블루카본이 온전히 저장되어 있도록 연안 생태계를 보호해야 합니다.

① **지금 우리가 연안 생태계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북극곰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나무 한 그루 심기와 함께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이자 저장고인 지구의 보물,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 데 동참합시다.

4. 위 연설자의 말하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유의 문장을 사용하여 주장이 야기한 논란을 해소한다. - **원리. 전혀 다 알수 없는 나중에 확인**
- ② 통계 자료를 근거로 활용하여 주장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 **숫자 확인**
- ③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하여 특정 대상의 가치를 강조한다. - **대략적 형태는 큰데 (잘기 줌)**
'물론 -2인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
- ④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들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시킨다. - **'처음에 나온 작문 높은'**
- ⑤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 **'마지막에 나온 작문 높은.'**

1단계: 2층. 마지막 확인은 ④, ⑤ 지기
 2단계: 숫자 확인 ② 지기
 3단계: ①, ③의 형태를 생각하여 하나 보일 때까지 찾기

☆ 회색에서 어떤 형태를 찾은 '장담 찾기'가 되면 안됨.
 '선택지 지기'가 되어야 함.

[2020학년도 수능]

■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필통에는 어떤 필기구가 가장 많은가요? (청중의 답을 듣고) 네, 제 생각대로 볼펜이 많군요. 그럼 사람들은 왜 볼펜을 애용할까요? 값이 싸고 휴대하기 편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볼펜이 사람들에게 널리 사용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볼펜은 글씨를 쓸 때 종이가 찢어지거나 볼펜 끝 부분이 망가지는 일이 적습니다. 이게 왜 장점일까요? (자료 1을 가리키며) 보시는 것처럼 볼펜이 사용되기 이전부터 쓰이던 만년필은 모세관 현상에 의해 힘들이지 않고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펜촉이 날카로워 종이가 찢어지기도 하고, 거친 표면에 글씨를 쓰면 펜촉이 망가지기도 쉽습니다.

아, 질문이 있으시네요. (㉠청중의 질문을 듣고)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종이의 섬유소가 가는 대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펜촉에 있던 잉크가 모세관 현상에 의해 종으로 흘러가서 쉽게 필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었나요? (청중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네, 그럼 발표를 이어 가겠습니다.

(자료 2를 가리키며) 보시는 것처럼 볼펜은 글씨를 쓸 때 볼과 종이의 마찰에 의해 불이 구르지요. 이 과정에서 불의 잉크가 종이에 묻으며 글씨가 써집니다. 그런데 볼펜의 불이 빠진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시죠? (자료 3을 가리키며) 보시는 것처럼 볼펜은 잉크가 들어갈 대롱의 끝에 불을 넣은 후 밑부분을 오픈하려 불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데요, 불이 빠지는 문제를 정밀한 기술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볼펜은 종류가 다양하여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고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글자가 물에 잘 번지지 않는 유성 볼펜, 필기감이 부드러운 수성 볼펜, 여러 색을 하나에 담은 다색 볼펜, 글씨를 쓰고 지울 수 있는 볼펜, 우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압 볼펜 등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볼펜은 신문 기자였던 라즐로 비로가 특허를 낸 이후 상용화되면서 기존 필기구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꾸준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볼펜이 사람들에게 널리 사용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대상이 온전한 일면 '평가'의 형태 비교형
 작기 5단 전

5.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발표 대상의 종류를 열거하여 장점을 소개하고 있다.
- ② 청중의 대답을 예상하고 질문하여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가 포함된 것의 앞뒤 적인 필요 '청중'에서 확인*
- ③ 청중의 경험을 이끌어내며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중이 유발'이 목적이라면 '청중'이 있었을 거다. '거' 없으면 안됨.*
- ④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 나중에 확인 '이름 찾기' '이름 사용. 형식 파악'*
- ⑤ 발표 대상의 특징을 부각하기 위해 다른 대상과 비교하고 있다. *발표 대상 vs 다른 대상*

→ [] vs []
 (각각을 찾아서 써 들는 행동이 필요.)

(단계: 2번 2번)
 2단계: 각 문단에서 ①, ②, ④, ⑤ 를 찾아서 2번
 3단계: 마지막 5번 2번
 (가를 문제 해당 유형 중 가장 어려운 문제)



[2020학년도 9월 평가원]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문단이 짧아 '처음'이 되기에 부정확해 보이나

2문단 시작을 보면 1문단이 단축된 '처음' 역할을 담당하는 것 같지 않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발표를 맡은 ○○○입니다. 저는 전통극과 관련된 문화유산 중 '예산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산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산대'를 알아야 하는데, 산대는 산 모양의 큰 무대입니다. 산대는 대개 고정되어 있었지만 『광해군 일기』에 사람들이 산대를 끌어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동이 가능한 산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예산대인데, 이 명칭은 『성종실록』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산대의 구체적인 모습은 조선 영조 때 중국 사신단의 일정을 담은 『봉사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기이한 돌산처럼 보이는 물체를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죠? 이것이 바로 전통 인형극을 위한 예산대의 전체 모습입니다.

우선, 예산대에 있는 인형들을 알아보을까요? 수레바퀴 바로 위에는 선녀 인형과 낚시꾼 인형이, 그 위에는 원숭이 인형 등이 있습니다. 그림이 작아 잘 안 보일 테니 이 인형들만 확대해서 보여 드릴게요. (㉡자료 제시) 지금 보는 선녀 인형은 양팔을 흔들며 춤을 추었습니다. 낚시꾼 인형은 낚싯대를 앞뒤로 움직이는 모습을 연출했다고 해요. 그리고 원숭이 인형은 돌아가면서 주변 구멍에 얼굴을 내밀어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산대 위의 인형들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산대 아랫부분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료 제시) 여기 보이는 수레바퀴가 그 역할을 했는데요, 이 그림은 최근 예산대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내부 구조를 재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산대를 이동하면, 예산대 내부의 톱니바퀴가 수레바퀴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회전하면서 인형들을 움직였습니다.

이처럼 예산대는 이동 시에 인형들을 자동으로 움직여 극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점에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산대에 대해 관심이 좀 생겼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여러분도 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전통문화의 또 다른 예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6.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중에게 질문을 하여 발표 내용에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 안 있던 됨.
- ② 정보의 출처를 언급하여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우리. 청중 다 알수 없으니 나중에 확인
- ③ 청중과 공유했던 경험을 제시하며 발표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 '처음'에서 확인, '~는 -를 의미합니다'의 형식 문제. 보통 문장인 '은의 전, 2문단 시작문에서 우리
- ④ 발표 주제와 관련된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우리. 청중 다 알수 없으니 나중에 확인
- ⑤ 발표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며 청중에게 바라는 바를 제시하고 있다. () 확인. '아침'에 제시된 괄호 넣음.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탈’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저는 며칠 전에 <세계 여러 나라의 탈>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인상적인 탈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발표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던 중 마침 국어 시간에 ‘봉산 탈춤’을 배워서 발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면 1을 가리키며) 이 탈의 이름을 아세요? (청중의 반응이 없자) 안동에서 볼 수 있는 탈이에요. (대답을 듣고) 하회탈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군요. 흔히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정확히는 하회탈 중 양반탈입니다. ‘봉산 탈춤’의 양반탈과 달리 눈 아래부터 귀 위까지 이어진 선이 눈꼬리와 겹쳐 미소를 만드는데, 단순한 얼굴형에 특별한 장식이나 화려한 색채 없이 눈썹, 눈, 코, 입을 선으로 표현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양반은 냉수 마시고도 이 쭈신다.”라는 말에 담긴 허풍과 여유가 동시에 느껴지지 않나요?

(화면 2를 가리키며) 이 탈은 중국의 장수 관우탈인데요, 무엇이 가장 먼저 보이세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저는 용이 새겨진 복잡한 모양의 관에 시선이 갔습니다. 양반탈이 이마 부분까지만 표현돼 있는 것과 달리 관우탈은 머리에 쓴 관까지 표현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얼굴이 강렬한 붉은 색이어서 무시무시하면서도 화려한 느낌을 줍니다. 얼굴과 머리 부분을 모두 이용해 관우의 박력과 위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마지막은 아프리카 카메룬의 탈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의 탈은 과장과 생략이 특징입니다. (화면 3을 가리키며) 보시는 것처럼 이 탈도 추상적으로 보일 만큼 과감한 생략이 인상적인데요, 단순한 곡선과 직선으로 표현된 커다란 눈이 작은 코와 대비되어 더 두드러져 보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탈들을 (화면 4를 가리키며)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선을 활용하여 단순하게 표현된 왼쪽 탈들, 화려한 장식에 다소 복잡한 오른쪽 탈이 보이시죠? 이 차이가 탈의 용도 때문은 아닌지 궁금하여 기회가 되면 ‘탈의 용도에 따른 모양’이란 주제로 탐구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조사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입부에서 발표에 사용될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며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당연히 '처음'에서 확인
- ② 수업 시간의 경험이 발표 주제 선정의 동기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처음'에서 확인 이후 내용, 중요 전환 필요
- ③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며 발표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 신뢰. 청중 다 알수 없이 나중에 확인
- ④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며 추가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 ? + () + 이후 내용 확인
- ⑤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도를 확인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 '마지막'에서 확인